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일본인 국제 인권 변호사 도츠카의 10년 유엔 활동 기록 ■ 도츠카 에츠로가 쓰고 박흥규가 엮어 옮기다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670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신대’에서 ‘위안부’로, ‘위안부’에서 ‘성노예’로

‘성노예’란 과거 일본 제국군이 ‘종군위안부’란 이름으로 여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한 노예적 행위를 뜻하는 국제 용어이다. 1992년 이후 이 책을 쓴 도즈카가 유엔에서 사용하면서부터 점차 정착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현대사에서 일본 정부가 제도적으로 주로 한반도 여성에게 강요한 뒤로 유사 사례가 없으므로(단 나치 독일에서 이러한 예가 최근 발견되지만, 다른 점이 많다) ‘성노예’란 바로 일본이 자행한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위안부’ 등 일본에서 사용한 용어를 쓰지 않고 이미 국제적 통용어가 된 ‘성노예’라는 말을 쓰고 있다. ‘종군위안부’나 ‘위안부’라는 말은 ‘성노예’라는 본질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일찍이 ‘정신대’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1944년 8월에 공포된 여자정신근로령에서 25세 미만의 여자를 여자정신대로 조직하고 1년간 근로 동원되는 것을 의무로 정한 것에 따라 공장 노동에 종사한 여성 노동자를 뜻한 것으로 ‘위안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또한 일본 제국군의 용어이므로 채택하지 않았다. …… ‘성노예’라는 말을 번역어로 선택하면서,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노예를 고대 사회나 근대 혹은 노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 해방되어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노예는 아직도 존재하며, 무수히 존재한다. 인신매매, 매매춘, 인간의 신체 일부(예컨대 심장)의 매매, 강제 노동 등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